

여야, '김민석 청문회' 시작부터 고성 격돌

‘명예 훼손·범죄자 취급 지양해야’

野 “문지마”·‘깜깜이’ 청문회 만들어”

서울시장 출마설 “총리, 마지막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24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증인 제택 협상의 결렬 경위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놓고 여야 간 시작부터 격돌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후보자가 본인을 포함한 주변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쟁점을 제대로 설명하는 알맹이 있는 자료는 전무하다”며 “청문회는 묻고 듣는 회의인데 ‘묻지 마’·‘깜깜이’ 청문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번 청문회가 증인·참고인이 없어 처리지게 된 것을 두고도 “2000년부터 총리 청문회가 시작됐는데 사상 초유로 증인 없이 치르게 됐다”며 “국민의힘은 기죽과 전처를 빼고 수상한 금전 관계가 있는 딱 5명만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현 간사는 “민주주의 최고의 마지막 수단인 표결로 택하면 되는데 이종배 위원장께서 협상이 안 되면 결렬된 것으로 하자

고 해 최종적으로 증인·참고인 없이 청문회를 개최된 것”이라며 “증인·참고인은 이 청문회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지,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배 의원이 김 후보자에 대해 ‘검찰 고발 당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은 국민의힘이 한 것이다. 그걸 수사가 착수된 것인 양 일부 언론에서 왜곡하고 있는데 사건이 배당된 것”이라며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이후 청문회 과정에서도 지양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김 후보자는 공식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에 관해 설명해 달라는 민주당 박근택 의원의 질의와 관련, “세비 이외의 수익은 축의금 또는 조의금, 출판기념회 2번, 처가 장모에게 생활비 지원을 간접 받은 것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것들 정도가 총체적으로 모여서 세비 외 수익을 구성했다”며 “그 구성에 있어서는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시기에 몰려 상당액의 현금을 쌓아놓는 방식이 아니라 매해 분산돼 조금씩 그때 그때 지출이 됐다고 큰 틀에서 설명해 드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면 각각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에 모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진 액수도 사회적인 통념, 제 연배의 사회생활 또는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행사들에 비춰 다시 확인해 본 바, 다 감사한 액수이기는 하지만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

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정치인 출신 지명자라면 총리 생활을 1년 정도 하고 다음 지방 선거 때 서울시장에 한 번 도전해 보겠다는 생각

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물은데 대해 김 후보자는 “대통령님께 이 (총리) 직이 제 정치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력투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앞서 김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고군분투 만으로 정부가 운영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속히 정부가 제자리를 찾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수위 없이 맨 바닥에서 시작한 정부가 빠르게 대한민국을 안정적 궤도로 옮겨놓으려면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안팎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슈퍼 복합 넛크래커(nutcracker·hoodie 끼는 기구) 상황 속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보다 더 힘든 총체적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새로운 정부에 부합하는 새로운 모습의 총리가 되고자 한다”며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하는 총리, 의전에 갇히지 않는 실용적 총리, 책상에서만 일하지 않는 현장형 총리, 일방적 시지가 아닌 경청하는 소통형 총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수 기자

민주, 장관직 인선에 “유능한 비상 내각”

박지원 “만점인사”·전현희 “실용·통합”

일부 불만 제기 서둘러 ‘진화’ 나선 듯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직 인선에 대해 실용과 통합에 방점을 둔 ‘일하는 내각’이라고 평가했다.

진보 진영 등 일부에서 이번 이 대통령의 장관직 인선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오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민생 위기 와 중동발 위기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비상 내각”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실용과 통합에 방점을 둔 인사도 보이고 기본적으로 실

력, 유능함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라며 “매우 적절하고도 굉장히 학습적인 인사”라고 강조했다.

김우영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일하는 내각”이라며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혼직 철도기관사를 박탈했다. AI 전문가들, 배경훈과 기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LG 출신”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는 전문성과 능력, 통합과 실용, 개혁과 국민여론 수렴, 그리고 지역 안배까지 모든 메시지를 담아낸 아주 잘된 인사”라며 “만점”이라고 평가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사를 박탈했다는 평가도 잇따랐다.

전현희 의원은 “(개혁 보수 진영에서 주로 활동한) 권오을 보훈부 장관의 경우에는 통합적인 인사로서 가장 눈에 띄는 인사로 보인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전임 장관인 데 유임시켰다”고 설명했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노동부 장관과 농림부 장관이 눈에 가장 띠었다”며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장관은 대통령의 실용적 철학이 반영된 인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공격에 더해 ‘민주당 선대위 장관 인선’이라며 공세 전선을 확대하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준혁 원내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협력의 정지, 책임 있는 정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부대표는 “총리 인선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장관 인선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부처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국정에 전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안전실장 2급 상향…광주시, 227명 승진 의결

2급 1명·3급 2명·4급 12명·5급 39명

설 확충 ▲5·18 광주정신 계승 행정 등 시정 발전에 기여했다.

/변은진 기자

▶ 1면 ‘중증장애인생산품’서 계속

무엇보다 지자체를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제품 우선 구매 비율이 2015년 처음 1%를 넘긴 이후 2021년(0.99%)을 제외하고 계속 달성했다는 점에서 전남도와 시·군의 제도 준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남도는 구매 실적 저조 이유로 구매 가능 품목의 제한성을 들고 있다. 공공기관의 수요가 사무용품에 한정되면서 구매율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현재 중증장애인 생산 품 우선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22개 시·군과 본청 각 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도와 일선 시·군, 산하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도록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장애인 일자리·복지를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확대해야 하지만 구매 품목 한계 등으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 구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산 개체굴 첫 중국 직수출…녹동향서 상차식

전남도는 24일 “고흥 녹동향에서 전남산 개체굴의 중국 첫 직수출 기념 상차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상차식에는 공영민 고흥군수, 박선준 전남도 의원,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 수출 포워딩 업체(골든힐), 어업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초도 상차 물량은 7t이다. 중국 푸젠성 사면시에 본사를 둔 수산유통 전문기업 ‘푸젠 여우이자 수산유한공사’를 통해 사면시 식당과 틱톡(TikTok)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통될 예정이다.

/양시원 기자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 062)222-1095, 1096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임대
- 판매
- A/S

T.375-5880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여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히 험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광주역 앞 중흥6거리코너(중흥동712-14호2)
대형빌딩 상업지628평 지하4층지상10층
건평344평 연건평3,778평 승강기3대 주차150대
급매220억(조정가능)
공공기관, 의료시설, 쇼핑센터 등
무슨 업종이던 좋은 위치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